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 [0] 목차

- [00] 교재 소개 및 학습법: 1p
- [01]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2p
- [02]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4p
- [0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p
- [04]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8p
- [05]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10p
- [06]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p
- [07]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p
- [08]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16p
- [09]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p
- [10]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p
- [11]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22p
- [1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4p
- [13]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26p
- [14]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28p
- [1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0p
- 빠른 정답: 32p

## [0] 교재 소개 및 학습법

반갑습니다! 문학 자료 제작자 자이오노스입니다.

2027학년도 문학 만.담. 현대 기출편은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를 다루는 갈래별 기출문제집입니다. 크게 현대시(및 복합), 고전시가(및 복합), 현대산문, 고전산문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특정 파트만을 풀고 싶은데 모든 파트가 수록된 기출문제집을 한 권 구매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는 문제편과 해설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문제편은 무료, 해설편은 유료입니다. 문제편은 설명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 문제만 실려있습니다.

해설편은 모든 지문과 문제, 선지에 대한 꼼꼼한 해설을 제시합니다.

교재 소개는 충분히 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3.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4.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낮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09]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율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猪)\*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배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필소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섧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숙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라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섧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땃소리 섧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굶이굶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쭉 하나니

[C]

- 작자 미상 -

1.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받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파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파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수능]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노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벌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려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잠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2.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벼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06]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집고 아이는 발을 가니  
뒷 뒀에 얹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느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피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닭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화회, 「사시가」 -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집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섣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느고  
㉢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조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낮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복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뚜르 똑뚜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놓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3.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건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4.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늑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5.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입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곧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9]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깐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B]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거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煙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자린은순: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희황천지: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 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늑류에 고기 께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뱃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수능]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로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로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모름하로 <제1수>

[A]

연하(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벼를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 -

(나)

산가(山家)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새  
 십 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굽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언덕 파서  
 활수\*를 끌어 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천고(千古)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一朝)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처음의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백석은 치치(齒齒)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뻑뻑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逕)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러 누웠  
 거늘

[B]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때 풀로 지붕 이고 자라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 활수: 흐르는 물.

\*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 옛 현인이 은거한 처.

(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간정, 성류굴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망양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기성면의  
 ㉡ 옛 망양정 자리는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  
 바닷물은 단애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정자 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고로(古老)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 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양정 옛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實景山水)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중략)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  
 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  
 [C] 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  
 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 김훈, 「겸재의 빛」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A]의 <제2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끝어 들어’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3.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보 기&gt;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 4.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고, ㉡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 ② ㉠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③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④ ㉠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 5. &lt;보기&gt;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lt;보 기&gt;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뽀 건 뽀고 과장할 것은 과장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① ‘뽀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 ②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군.
-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뽀 건 뽀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6]

(가)

㉠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遑遑)\*하노라

&lt;제1수&gt;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A]

&lt;제3수&gt;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lt;제8수&gt;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B]

&lt;제13수&gt;

성현의 가신 길이 ㉢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떠리

[C]

&lt;제17수&gt;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lt;제19수&gt;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세 황황: 십 년을 허둥지둥함.

\* 치군택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

\* 조월경운: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발을 깔.

(나)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함에, 아내가 취서사로 들어가  
겨름\*을 구해 오길 권하였다.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 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절은 기와를  
[D] 쓰기에 겨름은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  
보지 않았다.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취서사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근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 수와 맞먹었는데, 모두 겨름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좌우  
에서 낚아채 가며 많이 가지려 다투고, 시골벽적으로 뒤섞여  
땀이 대어 곧 시장판을 만들었으며, 가져감이 많고 적음은 그  
힘의 강약에 따라왔으나 승려들은 참견하는 바가 없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  
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  
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E]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은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  
하는 집 아래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겨름이 필요하  
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삼게 서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삼게 서원에 귀속된 절이었다. 그때 서원의 노비가 개인적  
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 있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담담하게 한  
마디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  
리라.

맹자는 “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이극은 “궁할  
때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하였다. 나는 궁함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또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쳤으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이미  
뒤우칠 줄 알았으니,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을 드러낸다.

- 김낙행, 「기취서행」 -

\* 겨름: 찻질을 벗긴 삼대

1. [A]~[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는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텐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4.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겨릅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겨릅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09]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건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매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궁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열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셋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하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먼 산 두메로 뺨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솔질 활활 활활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승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지나  
굵으나 굵으나 지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뺨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딱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훔쳐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짜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근 놀려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중: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려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조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수능]

\* 층석류: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웅당히 놀라리다  
해구를 열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쑥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B]

[C]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술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뚝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맑은 물에 버를 갈고 **청산**에 섰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1수>

<제6수>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1.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2.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었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06]

(가)

저 건너 ㉠ 풍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버 덕분으로 돈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제넘게 아는 체로 ㉡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예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울 적 갈 적 행로상에 ㉢ 처자식을 훌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뜬채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걸테 하다 혼금(閹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홍정 구문 먹기 ㉤ 관잔 들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령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볼까 ㉥ 감언이설 피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거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두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자리 되었구나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 가대(家垞):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  
 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뭍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짝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가을걷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뻥뻥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뻥뻥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매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피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숨쉴 겨우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은 재물을 모은 공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공생원이 권력자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다.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은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은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은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 ④ ㉡은 가물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은 한때의 피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 ⑤ ㉡은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공것’과 ‘뜬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뭇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공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5.09]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영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눈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온 눈이 온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다)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샷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제4수>  
- 조존성, 「호아곡」 -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 회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전내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2.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철과 조존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온 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입이’ 임금이려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5.수능]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舍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쏜나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곱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송\*인들 당할쏜나

- 작자 미상, 「갑민가」 -

\* 돈피: 담비 가죽.

\* 갑민: 갑산의 백성.

\*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에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서주: 서쪽 밭.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군.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전내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6.06]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려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내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옮겨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꺾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너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러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불들과 만류하되  
 ㉠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홍정유, 「동유가」 -

(나)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세별장(貰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  
 (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A]

고저(庫底)가 곳간 바닥 그대로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혀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  
 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ㅼㅅㅅ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  
 긴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쬼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ㅼㅅㅅ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  
 마다 달의 물결이 ㅼㅅㅅ 하고 흘러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는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진 말진,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섭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이태준, 「해춘 일지」 -

\* 모새 : 가늘고 고운 모래.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 ② ㉡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 ③ ㉠은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 ④ ㉠은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주하러 나가는 길이다.
- ⑤ ㉠과 ㉡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진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툼'과 '이 돌'을 전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4.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술'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 ③ '뽕—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 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 ①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② (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운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③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 ⑤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6.09]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요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피꼬리 아니로되 ㉠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벌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어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밟았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려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겁 이에서 더할소나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나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해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충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홍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훑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정관 : 술.

(나)

㉤ 공명을 해아리니 영육이 반이로다

동문에 패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해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피에 얻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괴중  
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동문에 패관하고 :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다)

㉥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 채헌, 「석문가」-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③ ㉢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 ④ ㉣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⑤ ㉤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⑤ ㉠은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뎢'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나)에서 '청풍'과 '명월'을 다른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기'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놀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6.수능]

(가)

온성이 몇 리런고 ㉠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 촌인(村人)의 숨씨 아너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름소나  
 이 사람이 술 즐거움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체 무엇 하리 담배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와 진배없네  
 ㉣ 유심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라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비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 억지로 말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라  
 여러 날 칩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꽤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라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몸살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곧이들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 구강, 「북새곡」-

\* 봉고파출 : 어사가 고을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잠금.

(나)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 방패연에 세세히 적어  
 정월 대보름에 서풍이 고이 불 제 하얀 실 한 열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제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지막 전승하자 등게 등게  
 뚱뚱 떠서 높고 높이 솟아올라 백룡의 굽이같이 굽틀뚱틀 뒤흔들  
 어저 구름 속에 들거고나 동해 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섰는  
 나무에 걸렸다가

풍소소 우낙락할 제\* 자연 소멸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풍소소(風蕭蕭) 우낙락(雨落落)할 제 : 바람 술술 불고 비가 후둑 후둑 내릴 때에.

(다)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 연을 지어  
 대사(大絲) 황사(黃絲) 백사(白絲) 줄을 통 열레에 살이 없이  
 바람이 한창인 제 삼간 퇴김 시간 근두\* 반공에 솟아올라 구름  
 에걸렸으니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면 테 임 줄맥을 길게 대어 뉘아 올라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삼간 퇴김 시간 근두 : 갇은 재주를 부려 연을 날리는 것을 말함.  
 \* 줄맥(脈) : 줄의 힘.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남의 말을 인용하여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상의 존재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현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방위의 의미를 포함한 두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행로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는 인식으로, 서성 박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술맛에 대한 평가로, 장사가 홀연히 등장했다는 인식과 함께 술의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③ ㉢은 장사에게 화자가 어떻게 보였는지 추측한 진술로,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 ④ ㉣은 이 부사에 대한 평가로, 좋은 술을 얻은 것은 그가 옛 인연이 있었던 화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⑤ ㉤은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위엄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다.

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감긴 실을 끝까지 풀어서 멀리 떠나보내려는 대상이다.
- ② ㉠은 비를 기원하여 바다 건너 자연물에 걸어 두려는 대상이다.
- ③ ㉡은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하늘에 유유히 띄워 두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임에게 보내려는 전언을 담고 있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집단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날리는 대상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가들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가)는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화자를 대상화하며 해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나)와 (다)는 동일한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그 자체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고, (다)는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얼음물에 빠져 '버선 행진' 다 적시는 대목은 경험을 실감 나게 보여 주면서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더라'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군.
- ② (나)는 정월 보름날에 '큰 잔에 술을' 붓는 행위로 예를 갖추며 연을 '마지막 전송'하는 모습을 통해 평안함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담아내는군.
- ③ (다)에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의 힘을 빌려 '먼 데 입'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드러내고,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연이 '굵틀뒤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다)는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빠른 정답										
2022학년도 6월										
1	⑤	2	③	3	④	4	①	5	③	
6	②									
2022학년도 9월										
1	④	2	②	3	②					
2022학년도 수능										
1	④	2	⑤	3	③					
2023학년도 6월										
1	⑤	2	②	3	②	4	①	5	①	
6	②									
2023학년도 9월										
1	④	2	③	3	②					
2023학년도 수능										
1	①	2	⑤	3	③	4	③	5	④	
2024학년도 6월										
1	⑤	2	④	3	①	4	③	5	④	
2024학년도 9월										
1	②	2	④	3	①					
2024학년도 수능										
1	②	2	③	3	④					
2025학년도 6월										
1	①	2	②	3	⑤	4	②	5	⑤	
2025학년도 9월										
1	①	2	③	3	③					
2025학년도 수능										
1	③	2	⑤	3	②					
2026학년도 6월										
1	③	2	③	3	④	4	②	5	③	
2026학년도 9월										
1	②	2	①	3	②	4	①			
2026학년도 수능										
1	②	2	④	3	①	4	③			